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kc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 소식

- ◆ 10 월은 **목주기도 성월**입니다. 목주기도를 통해서 성모님의 신앙을 본받으며 더욱 복된 한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예비신자 교리 신청 안내**
 * 신청하실 분은 광광주 예로니모 형제님 (614-214-6770)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당 재무 Volunteer**
 - 재무 감수: 사윤진 아우구스티노 서태수 바오로 이건영 프란치스코
 - 재무전산담당: 김상욱 안토니오
 - 재무위원: 손보영 쟈마
- ◆ **성모회 신임 회장단**
 - 회장: 고분순 로사
 - 총무: 최경수 마리아
 - 친교담당: 정정옥 베로니카
- ◆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성가단장 박영주 마리아 자매님 (614-315-8598)에게 연락바랍니다.

- ◆ **콜럼버스/신시내티 한인천주교회 친선 골프대회**
 - 일시: 10 월 18 일(토) 오전 10 (티타임)
 - 장소: Foxfile 골프클럽
 - * 티타임 20~30 분 전까지 꼭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및 문의: 서경환 프란치스코 형제님
- ◆ **친교 준비 봉사자**
 - 10 월 12 일: 광광주
 - 10 월 19 일: 이도근
- ◆ **10 월 친교 후 정리 봉사:** 이호영 구역
- ◆ 매월 둘째 수요일, 본당 **빈첸시오회**에서 **홀리스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일시: 매월 둘째 수요일 12 시-1 시
 - 장소: Faith Mission Shelter
599 E 8th Ave
Columbus, OH
- ◆ **2008 년 BAA (Bishop's Annual Appeal)**
 -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6,427 이며 지난 주까지 모금액은 \$5,520 입니다.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연중 제28주일 October 12, 2008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 비유>
 마태우스 메리안 (1593-1650) 채색 동판화, 독일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472.00
교 무 금	
BAA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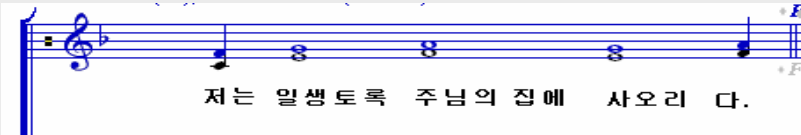
- 교 무 금: 박귀영
- BAA: 익명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이사야서 25,6-10

“주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내시리라.”

화답송



제 2 독서 필리피서 4,12-14,19-20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22,1-14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2,635단 19명
이호영	단 명	9,408단 77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6,745단 71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학생 구역	단 명	10단 2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단 명	2/22/04 - 10/5/08 (242주)

☞ 총누계: 199,918단 12,688명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10월 12일	10월19일
전례준비	서인원	박시영
해설자	고상식	김오경
독서/봉헌	정동완 김제준 구역	김효임 구역
보편지향 기도	평화의 모후	상지의 옥좌

오늘의 성가

♫ 입당: 9 ♫ 봉헌: 219
♫ 성체: 169 182 ♫ 파견: 6

초대받은 당신

김영춘 베드로 신부 / 평화방송·평화신문 주간

로마로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교황청 사회홍보평의회 실무자로부터 빨간색의 긴급표시가 달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가톨릭 라디오 회의(6월19일~21일)에서 제가 아시아를 대표해 한국의 평화방송 라디오에 대한 발표를 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었습니다. 늦게 청탁해 미안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빠른 응답을 요구하는 때늦은 초대가 제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해 놓아야 할 일도 산적한 가운데, 발표문을 준비하고 또 국제회의에서 발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선뜻 거절하고 싶었지만, 차분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황청 사회홍보평의회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가톨릭 라디오로 평화방송을 선정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평화방송을 국제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 초대에 응했지만, 로마로 떠나는 전날 밤 늦게까지 발표문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세계 45개국에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사흘의 일정으로 열린 가톨릭 라디오 회의는 둘째 날 낮 한 시 경에 교황님 알현을 마쳤습니다. 교황청궁 3층의 접견실에는 의자가 줄지어 있었는데, 첫 번째 줄에는 사회홍보평의회 의장인 첼리(Claudio Maria Celli) 대주교님을 비롯해 각국에서 참여한 주교님들과 고위성직자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던 실무자가 발표자들은 두 번째 줄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교황님이 참가자 전체에게 훈화를 마치신 후, 개별 알현이 시작되었고 사정상 두 번째 줄까지만 허락되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교황님의 손을 맞잡고 친구하고 대화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발표 초대를 수락했던 것이 저에게는 교황님을 알현하는 뜻밖의 행운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복음(마태 22,1-14)의 비유에 나오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임금처럼,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께로 끊임없이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초대하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이 이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비유에서처럼 초대를 거절하고 자신의 일에 매몰되어 발로 가고, 돈을 벌기 위해 장사하러 갑니다. 자신의 일과 장사라는 현실의 삶에만 매달려 하느님의 잔치를 거절합니다. 하느님의 초대를 거절할 때, 비유가 가르쳐 주듯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후회와 슬픔이고, 결국 하늘나라의 잔치에서 추방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에는 하느님의 초대를 수락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초대를 받아들여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신약에서는 마리아가 하느님의 초대를 수락하여 믿는 이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마리아는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초대를 수락합니다.

신앙인의 지상 여정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초대를 기꺼이 수락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하느님의 초대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도 구원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하느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